

<주윤애(권윤애) 계시의 말씀>

(전주 스타 교회의 주윤애입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떨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낮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고, 그 심정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깊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예수님 저 다리가 풀려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잘 서서 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역사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9월 8일 받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던 중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심정을 다 풀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서 섭리 사에 하시고 하자 하는 말씀을 속 시원히 받아서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고 싶은데 저의 몸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무지해서 잘 받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몸은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니까 저의 주관 다 버리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용해주세요 저는 말씀하시면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서는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그 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09.9.8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_ 새벽 2시 20~3시10분>

성령의 때! 성령의 역사! 곧 끝이 다가 온다. 모두 성령을 받고 회개하며 반절 이상은 깨끗해지고 있다. 깨끗해져보니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실상 섭리사는 감사의 기도는 많이 하였으나 회개 기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선생을 통해 이루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족함을 용서받고 섭리의 죄가 감해졌다. 이 많은 죄를 끌어안고 살았더라면 나의 재림 때에 어쩔 뻔 하였느냐. 분명 통곡하며 울며 그제야 죄를 회개하기에 급급하였을 것이다. 너희는 지금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내가 마지막 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차고 넘칠 때까지 받고 또 받아라. 욕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 영의 충만함을 이뤄야 한다. 너희는 나를 느꼈고 또는 나를 보았고 나의 음성을 들었으니 마지막 때에 오는 많은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지금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는 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성령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없으면 어찌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받아라.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듯이 광주리에 모아두듯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동물들이 모아두듯이 너희는 지금 부어주는 성령을 너희의 영에 쌓아두어라. 100% 채워라. 지금도 몸부림을 채워야 한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모두 잡아 그 시간을 하늘 앞에 드려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있을 때 이렇게 함께 하고 있을 때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응답받고 복도 받고 사랑도 받아라. 사탄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언제 넘어오나. 빈틈이 생기나. 시시탐탐 노리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이 태만해지면 망하는 것이다. 그동안 받은 성령으로 마지막으로 주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 힘쓰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인해 너희는 혼란에 휩싸일 것이다. 너희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를 기다려야 한다. 갇은 펴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요동치 말아야 한다. 너희는 힘들 때 마음이 요동할 때 나 예수의 고통과 너희의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 예수 또한 너희를 믿는다.

나라들은 소란하여 질 것이며 자연의 큰 재앙으로 질서들이 어지러워 질것이다. 절대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받은 성령으로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마지막 성령의 때에 모두 목숨 걸고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은 자는 환난을 이겨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자는 넘어지게 되니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성령을 충만히 채워라. 내가 부흥강사를 통해 하는 말을 100% 믿고 따르라. 내가 하는 말이니 모두 믿고 나의 말을 받으라. 부흥강사는 선생이 내게 받은 말을 주어 전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내게 직접 받은 깨달음으로 하기도 하고 선생을 통해 했던 말을 접붙여 너희에게 전해 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단상을 통해 하는 말인데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단상에 함께 서 있노라. 단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노라. 그러니 단상에서 외치는 자에게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음은 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모든 말을 내가 하는 것이다. 깨달음도 내가 주고 선생을 통해 하는 말도 내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떨어뜨리지 말고 단상을 통해 외치는 강사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내가 함께 하니 걱정 말고 모든 것들 내게 맡겨라. 너희의 영도 육도 혼도 모두 내게 맡겨라. 하늘 앞에 맡긴 자 모두는 복이 있다. 마지막 나의 재림 때 데려올 자를 나는 정말 거의 다 찾았으나 아직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주일 수요 말씀 단상을 통해 말하였다. 자신이 확신할 정도로 완벽해야 한다. 데려감을 받을 자 그 누구냐.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겠느냐. 우리 섭리사 너희들 모두가 아니겠느냐. 우리 함께 했던 그 나날들을 난 잊지 않는다. 너희가 선생을 통해 나의 이름을 부르고 선생을 통해 나의 존재함을 깨닫고 너희 선생을 통해 나의 사랑을 깨달았지. 그 모든 방법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 나는 모순 있게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늘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맞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선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나는 너희의 선생 계순이를 잊지 않는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일등 신부가 아니겠느냐. 나와 하늘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행한 자다.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곳에 있다해서 내가 버렸다 생각하는 자가 있으니 미련하고 우둔한 자요, 눈뜬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거짓 증언을 하는 병어리이다. 나는 그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창대케 되리라. 믿음이 있는 자여 너희도 함께 창대케 되리니 성령을 빼앗기지 말며 사랑을 빼앗기지 말며 첫사랑을 지속하여라.

이 섭리사 나는 늘 역사하고 있으며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가서 나의 심정도 주고 사랑도 주고 역사하고 있으니 깨어나 나를 맞이하라. 이 새벽에 내가 함께하듯 나는 너희와 함께하리라. 깨어나 나를 맞이하라. 너희를 사랑하고 늘 축복한다. 말씀 너무 소중하니 깊이 있게 듣고 마음 판에 새겨 꼭 너희 마음에 영혼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모두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나 예수가 주윤애를 통해 말한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새벽2:20~3:10분경 받은 말씀입니다. 다음 9월18일 받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근본을 알려주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 듣고 저희가 불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흑암권의 생명들을 다 불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09.9.18. 전도에 대해서 새벽 3시15분경>

사랑하는 나의 여인이여.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지금은 전도의 때이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이다.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전도해야 될 때에 전도하고, 주님 재림 맞을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 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전도하는 것에 빠져 새벽기도 하지 않고, 일에만 빠져 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 깊은 사랑할 때에 진정 하늘 아버지의 뜻하신 생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다. 전도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일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우린 하늘 아버지의 신부이다. 전도하는 것은 하늘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으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일으키고, 죄를 깨끗이 회개하여 깨끗한 몸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너희들의 그 전도의 열정에 감탄하였도다. 꼭 이루어보자. 목숨을 걸고 행하여라. 생명의 밑알이 되어 주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결코 높아지리라. 모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는 생명 전도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일체 되고, 선생과 일체 되고, 섭리사가 하나 되어 하늘 아버지의 큰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자. 나는 전도할 때 참으로 이 흐르는 눈물을 그칠 수 있다. 절대 환난의 구애 받지 말아라. 환경에 주관을 받지 말아라.

지금은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전도와 성령의 때이니라. 망설이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보는 생명 그 한 명 한 명 위해 힘쓰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죄 회개하고 뜨거운 성령을 받아 전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야. 전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에게 말해보아라.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해낼 수 있다고 하신다. 나 또한 너희가 할 수 있음을 안다. 기필코 선생의 정신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할 수 있을 꺼라 확신한다. 선생 또한 너희가 할 수 있음을 믿고 너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빠지지 말고 사랑의 잉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라. 지금 목숨 바쳐 하는 자 나의 재림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느니라. 때에 맞게 행하는 자가 큰 자이다. 지혜 있는 자와 나의 뜻을 행하는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생명 전도에 힘쓰라. 함께 하라.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는 자 성령 충만히 받아라. 가만히 앉아 기도하고 찬양해야 성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천할 때 성령 충만히 받고 넘치게 받을 수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자는 전도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를 통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올 것이다. 섭리사 너희가 아니면 그들에게 나의 재림을 깨우쳐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 때에 전도 모두 되게 해 줄 것이니 가족 전도하고 급한 생명부터 빨리 데려오고 잘 전조하여 성령집회에 참여시켜라. 1인1 명, 1인 10명, 1인 100명 까지도 할 수 있다. 너희가 나의 육신이 되어 사랑하는 나의 신부를 모두 데려와 주어라. 나는 영체된 몸이기에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너희가 나의 육신이 되어주면 나는 모든 걸 가능케 할 수 있노라. 너희 선생 몸 부셔지게 행했어도 내가 함께 하여 지금 이만큼 건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이야. 담대히 전하라. 담대하라.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구원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무엇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말고 속 시원히 나의 심정을 전해다오. 주일, 수요일 말씀 들려주고, 영의 세계 깨우쳐 주어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너희에게 보호망을 쳐 줄 테니 늘 보호망이 없어지지 않게 긴장하며 보호망은 너희를 사랑하는 나 예수가 아니겠느냐. 너희의 행한대로 나는 너희에게 역사해주리라. 절대 전도하면서 세상으로 오히려 끌려가지 아니하게 마음 단속하고, 정신일도 하고 무장하여라. 특히, 이성 조심해라. 지금 넘어지면 이제 끝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나 예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사랑하는 생명 데려와다오. 나의 심정 받아 전도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안녕. 새벽3:15분경 받은 말씀입니다.

(9월 18일 저녁 금요성령집회 때 받은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날은 저희 섭리사가 선생님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무릎 꿇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선생님과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선생님을 증거해 주시고, 또 선생님이 이 섭리사에 얼마나 소중하고 저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깨닫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9.9.18 스승에 대해서 밤 10시 20분경>

섭리의 나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너희 선생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위해 같이 기도하자. 너희 선생 너희 생각하며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데 선생 두고 어디를 간다는 거냐. 우리 사랑하는 계순이 마음이 무너져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내게 의지하며 울고 매달린다.

계순이, 나의 사랑하는 계순이의 마음을 누가 알까.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만 알 수 있지.

사랑하는 신부야. 너희 선생 그 곳에 있으면서도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순간들뿐이다. 그런데 계순이는 ‘주님 함께 계시 행복하다’ 한다. 빨리 너희 만나려 곳은 일 마다 않고 몸을 날려 그 곳 일도 죽을힘을 다해 한다. 너희가 그 깊은 심정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 있더라도 너희 구원하고 너희 죄 깨끗이 회개하고 나와 만나게 해주기 위해 기도하고 너희에게 말씀 주기 위해 매일 나에게 간구한다. 내가 너희 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계순이를 잊을 수 없어 너희에게 말해주고 가려고 한다.

신부들아. 너의 선생은 나와 너희뿐이다. 어디 간다고 하느냐. 선생 두고 어디 간다고 하고 가는 것이냐. 선생은 하늘의 뜻 길을 누구 위해 가겠느냐. 너희를 너무 사랑하여 너희와 함께 천국에 가서 기쁘게 살고자 그 길을 간다. 너희 한 명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매일 내게 기도하고 너희 죄 대신 회개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여. 너희 선생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다오. 나에게 사랑을 주는 너희들 선생에 대한 사랑도 식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힘 받고 일어날 때 너희 선생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노라. 너희는 선생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되면 마음을 찢게 되고 눈물이 강을 이룰 것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 말해줄 것이야.

때가 되면 나는 너희 사랑하는 계순이를 세상 앞에 높일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섭리의 많은 사람들아. 너희 선생 눈물 닦아줄 수 있게 한마음 일체되어 하늘 뜻 이루고 선생의 심정도 알아다오. 단 5분만이라도 선생 생각하며 내 육신이 그 곳에 있다고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 육신이 편하기에 그 심정 모르고 고통 모르는 것이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이 바깥 세상 그림렸느냐. 너희 모두를 얼마나 만나고 싶겠느냐. 그러나 때가 있기에 지금 이같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갈 때 너희 선생의 손을 잡고 내가 가니 선생의 심정도 위로해 주어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 너희는 잘 아니까 절대 끝까지 사랑하며 생명의 하늘의 역사 이뤄줄 것이라 믿는다. 마음 변치 말고 행하여라. 너희 선생이 너희에게 전해주란다. ‘사랑해. 너희에겐 오직 주 예수님, 나뿐이지. 나에게도 오직 예수님, 그리고 너희뿐이다. 사랑해. 우리 영으로 만나고 대화하자. 하늘의 역사 이뤄지는 그 날까지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자. 보고 싶은 나의 사랑 안녕. 사랑해. 사랑해.’

(밤 10:20분경 받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 예수님 말씀해주셨음을 믿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